
		<b>보 도 자 료</b>		수도권매립지 종료	
		배포일자 2022년 4월 28일(목) 총 3매	 환경특별시 인천		
담당 부서 국제협력담당관	담 당 자 • 아시아팀장 • 담당자	명창준 ☎440-3201 최혜원 ☎440-3202			
사진(이미지)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참고자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있음		
보 도 시 점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천형 공적개발원조사업’ 확대해 개도국과 우호 다진다

- 환경, 정보통신기술 정책 등 선진행정 전수로 인천의 우수성 전파할 것 -  
- 국제기구, 인천대와 협업해 국제적 위상 제고 -

인천광역시는 코로나 19로 중단됐던 개발도상국과의 국제개발협력사업 재개를 위해 ‘인천형 공적개발원조사업 확대방안’을 수립하고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이란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 사회복지 증진을 주목적으로 하는 원조사업을 말한다. 그간 인천시는 개발도상국과의 우호증진과 국제사회 현안에 대응하기 위해 동남아 국가들에 의료 지원 사업과 몽골 울란바토르에 희망의 숲 조성사업을 실시해 왔다.

인천시에게 개발도상국은 미래의 잠재 고객이자 중요한 파트너이다. 이에 시는 △환경·농업분야 연수사업 △정보통신기술 역량강화 교육사업 △기후변화대응분야 핵심인재 양성사업을 주축으로 ‘인천형 공적개발원조사업 확대방안’을 수립했다.

이는 그간 수원국에 물고기를 잡아주던 재원 조달방식에서 탈피해 인

천시의 강점분야를 개발도상국에 전수하고, 수원국이 자체적으로 유지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의의가 있다.

특히, 인천시는 지역사회와 연대해 공적개발원조사업의 폭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국제기구와 함께 자매도시 공무원의 정보통신기술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고 인천대학교와는 기후변화대응 핵심인재를 양성하는 연수사업을 실시하는 등 다양한 주체와의 폭넓은 공조체계를 구축해 개발도상국의 디지털 격차 및 기후환경 문제에 적극 대응할 예정이다.

시는 이를 통해 지속가능한 개발목표(SDGs)이행 역량을 강화해 국제사회의 가치 실현은 물론 인천시의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나기운 시 국제협력담당관은 “ ‘인천형 공적개발원조 사업’ 은 미래의 개발 잠재력이 높은 개발도상국과의 우호를 차근히 다져 호혜적 협력체계를 구축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 이라며 “향후 아시아시장에서의 저변을 확대하는 등 관내 기업의 인적·물적 자원 경쟁력을 확보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한다” 고 말했다.

☐ 인천형 국제개발협력(공적개발원조)사업 확대방안

○ 추진방향

- 개도국 공무원을 대상으로 비교우위 강점분야 사업지원으로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 및 인천시 선진행정 전파

○ 주요내용

- 환경·농업분야 정책 및 기술연수사업
- (국제기구 협업)정보통신기술 역량강화 교육 참여
- (인천대학교 협업) 기후변화대응 분야 핵심인재 양성

〈사진〉 일본과의 국제협력영상회의

